

강원도민 암 조기발견, 새해부터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강원도민 5대 암검진 사업 실현한 김진선 부지사



강원도가 새해부터 강원도민을 위한 5대 암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각종 암 발생률의 증가 추세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검진이 나 병원을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하여 도내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암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해부터 검진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진선 부지사 건의, 최각규 지사가 흔쾌히 받아들여

이 검진사업 실현의 주역은 바로 강원도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 지사를 비롯한 김진선 부지사와 도관계자들.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도의 사업계획은 '지역발전'을 통한 도민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행정과 사회복지부분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가 취약하고,



▲ 강원도민 위한 5대 암검진사업을 실현한 김진선 강원도 부지사.

◀ 김진선 부지사와 내년에 암검진 실시를 맡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의 정순표 사무국장(사진 왼쪽).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고민을 하던 중 최근 건강에 있어 최대의 문제이자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암검진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대 암검진사업의 구상 동기에 대한 김진선 부지사의 설명이다. 김 부지사는 이 검진사업의 필요성을 최각규 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보고했고, 최 지사가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97년, 4만 4천여 저소득층 주민 등 대상 검진 실시

‘97년에는 우선 저소득층, 농어촌 오·벽지 주민 4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위암·폐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 등 5대암 검진을 위해 도비, 시군비,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5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

강원도는 이 예산으로 특수 이동검진버스를 비롯해 암검진 장비 등을 구입하여 시·군·리·동 단위를 순회하면서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순회검진인 만큼 기동력이 뛰어나고 순회검진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이 검진사업을 맡기로 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민 서비스를 잘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고 오랜 동안 산간 오지를 비롯한 도민의 생활현

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5대 암검진사업을 계기로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업의 첫 시작을 시범지역 검진 등 환원사업 차원으로 구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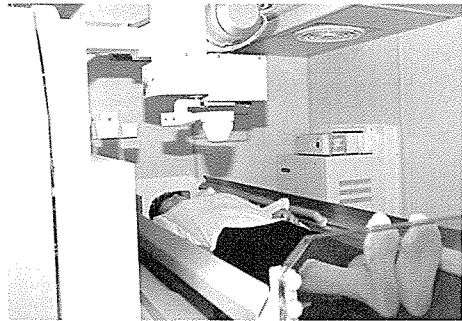
김진선 부지사는

이번 검진사업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맡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암검진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시대는 곧 경쟁시대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정의 방향 비교우위의 확보라는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농산품개발, 관광지역 개발, 관광산업 등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아 가꾸고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라고 새해의 계획을 밝힌 김진선 부지사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을 건강한 생활의 기본으로 꼽고 있다.

“심지기위의(心之起爲意)”지세로

『심지기위의(心之起爲意), 즉 마음이 일어나면 뜻이 일어난다는 말을 저는 가장 좋아하



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만년을 있을 것처럼 일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야 말로 나 자신과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협이 앞장서서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 김진선 부지사는,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후 영월군수, 내무부 법무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강릉시장, 부천시장을 거치며 도민 생활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가치있는 행정을 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료. 김진선 부지사야말로 바로 이 시대가 바라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 